“최첨단 수사기법 뺑소니 검거에 성과”

광주경찰청 김성수 교통조사계장

교통범죄 수사팀 뺑소니 검거율 100% 달성
CCTV·블랙박스 등 효과…시민제보 당부

“나날이 발전하는 수사기법의 첨단화가 뺑소니 인피사고 피의자 검거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경찰이 2018년 상반기 뺑소니 인명사고 피의자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 동기간 전국 검거율 94.9%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점수다.

광주경찰은 지난 2015~2017년 3년간 뺑소니 인명피해 사고 피의자에 대한 높은 검거율이 90% 후반대에 머무르는 등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연간별로 지난 2015년 96.1%, 2016년 99.1%, 2017년 99.1%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광주청 교통조사계와 지난 2016년 각 5개 경찰서에 신설된 교통범죄 수사팀의 힘이 모인 결과다. 이에 대해 김성수 광주청 교통조사계장(43)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015년 이전 광주 지역 뺑소니 인명피해 사고 검거율은 90% 초반대에 불과했다. 사고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각 5개 경찰서의 뺑소니 범죄팀을 교통범죄 수사팀으로 개편했다. 교통범죄 수사팀은 경감급 팀장 지휘 아래 뺑소니 사건 뿐 아니라 난폭·보복운전, 보험사기와 같은 교통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해 전문성을 강화한 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뺑소니 사고검거율을 100%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첨단화된 수사기법이라고 김 계장은 소개했다.

김 계장은 “기존에는 뺑소니 사고 시 현장에 남겨진 차량 파손 유류물이나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요즘엔 CCTV나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도주차량 특정을 하기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예로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용의차량이 찍히지 않았으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로 차량을 특정한 사례도 있다”며 “차량기종별 부품을 데이터화한 차량부품 데이터베이스와 차량의 색 등 특정 값을 입력하면 해당 구간을 재생하는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등 수사기법의 첨단화가 용의자 검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계장은 “뺑소니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피해자 구호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면서 “뺑소니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정종제 광주시부시장 부모교육 강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차은선)는 2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부모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안내하기 위한 부모교육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부모교육 명사초청 강연회는 ‘What is your dream?-창의적인 사람은 스토리텔링으로 말한다’ 라는 주제로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음악, 미술, 철학 및 역사와 같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함께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이야 말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좋은 기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저축하는 것의 중요성 등 유익한 정보와 방법, 부모로서 지녀야 할 건강한 태도 및 마음가짐에 대해 안내했다.

/이연수 기자

GIST 스타트업 기업 68억 투자유치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생 창업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인 만도 등으로부터 68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일 GIST에 따르면 GIST 박사 4명이 창업한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lidar) 개발 스타트업 기업 ㈜에스오에스랩(SOS LAB)이 최근 만도, 산업은행캐피탈, 미래에셋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

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더(radar)와 달리 라이다는 빛을 이용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린다.

에스오에스랩은 기존 모터방식과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라이다를 개발, 하나의 발광원으로 수십 개의 발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업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제1회 2018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SVIIF)에서 하이브리드 라이다로 금상을 받고 KIC China & 베이징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GIST는 학생들이 연구한 기술로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창업진행센터 등을 통해 모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템 검증, 법인 설립 지원 등을 하고 있다.

GIST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에스오에스랩의 해외시장 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광민 기자

엑스페론 골프, 정기 봉사활동

엑스페론 골프는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서 한 부모 가정과 영유아 돌봄센터를 방문해 정기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재능기부센터와 연계한 이날 봉사활동은 엑스페론 골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직원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김사랑양(초 6년·가명) 집을 방문, 집안 대청소와 냉장고 정리, 먼지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새 신발과 새 옷을 구입, 선물했다.

이에 앞서 엑스페론 골프 직원들은 영유아 돌봄센터를 방문해 과자 박스를 선물하는 등 사랑을 나누는데 힘을 보탰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다현 사원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조그마한 힘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보람된다”며 “매월 진행되는 정기 봉사활동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페론 골프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따뜻한 동행’ 을 주제로 전 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황애란 기자

효령타운 ‘노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초청 다채로운 공연

효령노인복지타운은 2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북구 복지타운 내에서 ‘효령 어울림 한마당’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흥겨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즐겼다.

효령타운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연계해 중국변검·국악 및 악기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공연장은 200여 관중의 큰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부대행사로는 풍성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주막 부스와 KT 전남고객본부와 연계한 스마트폰 수리 및 교육이 진행됐다.

양안숙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안전 결의대회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2일 본부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칙과 절차 준수로 안전사고 제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안전의식 대전환 결의대회’ 를 개최했다.

목포대 2018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참가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다. 목포대 각 학과와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중국, 베트남, 몽골 유학생 20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 부스에서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인사 담당자와 면접을 실시했다.

광산구 ‘생생도시 아카데미’ 개강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1일 구청에서 수강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복한 마음 가꾸기’ 를 주제로 ‘제7기 생생도시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남부경찰서 공원안전순찰대와 야간 합동순찰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남구 봉선동 봉선근린공원 일대에서 공원안전순찰대와 함께 ‘안전한 공원만들기’ 를 위한 야간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전남대 김현주 교수 자개작품 우수문화상품·우수공예품 지정

전남대학교는 미술학과 김현주 교수가 출품한 작품들이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및 우수공예품’ 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김현주 교수는 ‘바다의 빛’ 을 주제로 와인 스토퍼, 잔, 차량용 방향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생활용품에 자개를 입힌 작품을 출품했다.

오색영롱한 천연의 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개를 현대인이 사용하는 일상도구로 특화한 공예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심사과정에서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문화 대표상품’ 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문화국가 이미지 확립과 전통문화의 현대화·산업화를 통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 확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디자인콘텐츠, 공예품, 한복, 한식·식품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받은 상품에는 한복의 옷고름 모양을 딴 ‘K-ribbon’ 마크를 부착한다.

김 교수는 “현대인들은 자개에 대해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전통소재가 지닌 숙명이라 여겨져 더 현대적으로 세련된 자개의 멋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간결하고 모던한 형태를 차용해 현대인의 삶 속으로 전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